

LG화학, 일본 2차전지 시장 진출

소프트뱅크에 UPS 리튬이온전지 모듈 공급 ... 추가 공급계약 기대

LG화학(대표 박진)이 국내기업 최초로 일본의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 모바일(Softbank Mobile)에 기지국용 UPS(무정전 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Battery) 모듈을 공급한다고 8월21일 밝혔다.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일본에서 13만개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는 2위 이동통신기업으로 현재 900MHz 신규 기지국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으며, LG화학이 8월부터 리튬이온전지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2013년 말까지 공급하는 리튬이온전지의 총 전력량은 20MWh로, 전기자동차로 환산하면 100억원에 가까운 1200대 이상에 해당한다.

LG화학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2차전지의 종주국인 일본 시장에 리튬이온전지 공급을 시작했다.

일본 이동통신기업들은 기지국용 UPS에 납전지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리튬이온전지 가격경쟁력이 대폭 개선되고 에너지 효율과 수명 등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대체하는 추세이다.

신규 기지국 UPS에 LG화학의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하면 무게 65%, 부피는 50% 이상 줄어들고 수명은 1.5-2배 늘어나는 동시에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소프트뱅크 뿐만 아니라 NTT Tokomo, KDDI 등 일본의 이동통신 메이저들 역시 앞으로 신규 기지국 UPS에 납전지 대신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LG화학의 추가 공급계약 체결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등은 일본 UPS 시장이 9000억원, 세계시장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 본부장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종주국인 일본 시장을 신규 개척하는데 성공했다”며 “앞으로 해외 UPS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21>